

# 우리는 그의 흔적(markers)입니다.

인터뷰어 신국원 (월드뷰 편집위원, 총신대 교수)

## 김준영.

“나의 미래 공작소”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 나의미래공작소 디렉터, 계산제일 교회 문화사역자 및 청년부 담당 사역자이자 우리에게 친숙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산 갈아서’, ‘날 향한 계획’, ‘주님의 사랑’, ‘주를 위한 이곳에’, ‘그가 오신 이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나의 노래’, ‘동행’, ‘하루’ 등 솔한 찬양을 발표한 작사가, 문화사역의 다양한 지평을 열어가는 김준영 디렉터를 월드뷰 편집위원인 신국원 교수가 만났다.

**신국원 (이하 신)** 오랜만입니다. 마커스, 나의미래공작소(이하 나미공), 문화캠프 핼(P.Y.M), 예학당 등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애쓰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월드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김준영 디렉터의 사역을 월드뷰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신앙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준영 (이하 김)** 저는 삼대째 양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고, 외할머니의 동생인 외삼촌 할아버지가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토태신앙이지만 ‘못된 신앙’, ‘못해 신앙’이었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입시 실패 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96년도 제대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역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사역이 마커스 미니스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발자취와 함께 마커스 설립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김** 마커스 전에 98년도에 노래하는 단기선교팀 컨티넨탈싱어즈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지부의 컨티넨탈싱어즈가 있는데 소리엘의 장혁재 씨, 김명식 씨, 이유정 목사님 등이 이곳 출신 사역자가 많죠. 이후 99년도에 컨티넨탈에서 만난 천관웅 목사님과 디사이플스를 창단했습니다. 제자교회에서 예배팀을 새로 시작하는데 같이하자 하셔서 기획 및 실무를 담당하는 부 리더로 합류했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인도와 설교를 하면 저는 팀 안에서 기획, 실무 등을 했죠. 2001년까지 이 사역을 하다가, 당시 두란노서원에서 시작한 음반사업의 책임자 제의가 있어 그곳을 섬겼습니

COVER STORY

영원한 마커스, 김준영 디렉터와 함께하는 미래 공작소



팀이 깨져서 사라진 해체가 아닌, 마커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진 겁니다.



다. 이후 마커스 사명에 대한 비전으로 2003년 4월 26일 창단멤버 7명과 함께 마커스 설립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4월, 하나님 뜻에 따라 공식적으로 흩어졌고, 제가 2014년 6월에 가장 먼저 마커스 사역을 사임을 했습니다.

**신** 흩어졌다, 발전적 해체라고도 하던데 어떤 의미 인가요.

**김** 우선 해체가 아니라 정확히 흩어진 건데, 분립이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립은 모체가 있고 분립을 하는데 마커스는 모체 없이 다 분립했습니다. 각자가 마커스 안에서 해왔던 사역 중 자신의 비전에 맞는 사역들로 분립했습니다. 마커스의 사역을 크고 작은 13가지로 나누고, 각자가 자신의 비전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나의미래공작소'로 분립을 한 거고요. 여전히 목요예배 사역을 자신들의 역할로 삼은 마커스 멤버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팀이 깨져서 사라진 해체가 아닌, 마커스(그리스도의 흔적)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영역과 사역으로 '흩어졌다'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확산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마커스 멤버들과 2010년부터 나누고 준비하기도 했고,

**나의미래공작소** <https://www.namigong.com/>

나의미래공작소는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인 김준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크리스천 문화, 예술 훈련 단체이며, 이 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돕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의미래공작소는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실제적인 배움과 도움을 추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이들을 섬깁니다.

2011년에는 3개월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신** 이 부분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헤어짐이 아름다운 예가 많지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참 훌륭하다 봅니다.

**신**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마커스 사역 중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지금은 크리스천 예술가를 훈련하는 '예학당'이 눈길이 갑니다.

**김** 마커스를 시작하며, 찬양사역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나 신대원 등 여러 훈련과 과정이 있는데, 찬양사역에는 예수전도단의 DTS 정도가 다였죠. 그래서 마커스 멤버들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제자훈련 외에 예술에 관한, 음악을 훈련하는 곳을 찾다가 결국에는 제가 읽던 책들을 토대로 단 두 강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돌로스 훈련학교 사역자 반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크리스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원리와 관점에 대해 가르쳐야 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음악, 영화, 미술 등 각 영역의 전공자들과 1년 이상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토론하여 강의안의 큰 줄기를 잡았고, 이를 마커스 멤버들을 시작으로 지인들을 대상으로 3년 정도 비공개로 강의를 실시했고요, 이후 정식으로 강좌로 자릴 잡은 것이 지금의 '예학당'입니다.

**신** '예학당'이 벌써 12기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사역을 지속할 수 있던 비결은 뭘입니까?



목회자는 신학교나 신대원 등 훈련 과정이 있지만, 왜 크리스천 예술가에겐 그런 과정이 없을까? 이것이 예학당의 시작입니다.



**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일단 커리큘럼이 1년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목마른 예술 전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전공의 필드에서도 굉장히 상충되고 부딪힌 청년들이 많았죠.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원론을 말하니까 예술을 직접 행하는 예술가에게 실제적이지 못했던 거죠. 자신이 속한 예술의 필드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치닫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지점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창작활동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것인지 실제적 고민 사이 조연을 얻기 어려운 예술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예학당'을 알게 되고 모종의 기대감으로 온 청년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나눌 대상이 없으니 기본적으로 상당히 외로웠고 일단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

#### 예학당 <http://www.cartschool.kr/>

예학당 : 예학당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자훈련 학교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무기력해진 크리스천들이 창조성을 회복을 꿈꿉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인 또는 예술사역자들과 예술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의 문화적 흐름 가운데 바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자훈련학교로 총 40주차(매주 월요일, 3시간)로 진행됩니다. 현재 예학당은 1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예학당 13기 모집 :::

+ 모집기간 : 2017.04.02(일) 까지

+ 훈련기간 : 2017.04.10~2018.02.26 (총 40주)

+ 훈련일시 : 매주 월요일 PM 7:00-10:00 (주 1회)

+ 장소 : 나의미래공작소(합정역(2호선, 6호선) 도보 7분 거리)

+ 문의 : artschool153@naver.com / 070-8682-2657 (문예은 팀장)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4월에 13기가 시작됩니다.

**신** 그러면 초창기 마커스의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모임인 'ART AND SOUL NETWORK'과 현재의 '예학당'은 같은 사역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김** 'ART AND SOUL NETWORK'은 조금은 더 확장된 사역으로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의 연합사역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네트워크로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500여명의 예술가가 모였고 BWC(강연-예배-콘서트, Briefing Worship Concert)를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예술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창조하신 뜻을 회복하는 온전한 예술 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고 공부하고, 연대하는 비전을 선포하며 당시 IVP에서 출간한 『예술과 영혼(Art and Soul)』이 모티브가 되어 'ART AND SOUL NETWORK'라 명명했죠. 그 자리에서 200여명이 협력하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스튜디오도 하고 프로젝트 등도 했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의 예학당을 이끌어 가는 중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신** 중심 인력이 있으니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모이기 쉬워도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 현재 예학당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는 유명무실해져서 최근에 다시 '창작 마을 함께'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술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재정을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김준영 디렉터가 생각하는 문화사역은 어떤 것인가?





**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문화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강의를 의뢰합니다. 막상 강의를 들으면 예상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화가 결국 삶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를 바꾸려면 삶이, 삶을 바꾸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사역입니다. 한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이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 그리고 본이 되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문화사역은 세계관을 바로 잡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을 생각하고 꿈꿉니다만, 관심과 패기만으로는 쉽지 않죠. 문화사역이란 말도 무성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사역을 한다는 것이 애매하고 막연할 수 있어요. 뒤따르는 청년사역자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제가 문화사역을 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사역하면 콘텐츠나 프로그램 등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봐요. 한 부분이지만 문화사역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문화는 사회의 한 현상일수도 있지만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란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온전한 문화사역을 하긴 어렵다 봅니다.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전체 유기적 관계 속에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문화 사역자, 기획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 혹시 앞서 언급한 사역들 이외에 문화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김** 문화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문화사역의 시작이 교육이라 생각

## COVER STORY

영원한 마커스, 김준영 디렉터와 함께하는 미래 공작소

12



하기에 좋은 사역자, 후배들을 양성해내는 학교와 아카데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학당도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언젠가는 올바른 기독교 관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술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사명감 안에서 준비하고 창작활동하는 그런 진정한 예술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예술 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과 전문적인 제언에 있어 세계관동역회와의 협력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 세상에서 예수 문화 만들기, 문화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미래공작소>에는 예학당, 만나다, 배우다 등도 있지만, 여름에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캠프 P.Y.M도 있습니다.

**김** 캠프라는 것이 사람들을 어떤 시공간으로 초청하여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미공과 P.Y.M 캠프의 강사들을 저희는 가이드(guider)라 부릅니다.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청년들에게 조언과 스스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40대 중후반이고, 이들은 또 5~60대의 멘토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문화캠프 P.Y.M을 통해 청년들은 이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이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일단 캠프를 통해 압축되고 강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나미공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적인 삶에서 크리스천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도움과 여러 도전을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 작사가로 유명합니다. 김준영 디렉터가 직접 쓴 가사 속에는 일상 속 신앙 고백이라는 하나의 주된 메시지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르신 곳에서’가 있고, 번역한 ‘온전케 되리’도 있습니다.

**김** ‘온전케 되리’는 두란노에서 있을 때 번역했었고요. 사실 제가 가사를 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획자고 실무자로 이성적인 판단을 요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커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마인드를 풀어내고자 자연스럽게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 2009년 ‘부르신 곳에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에 수련회의 주제가 ‘부르신 곳에서’가 절반 정도였다 할 정도로요. 과거 찬양과 달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등은 그 제목이 딱 떨어지지 않아 기존과 다르다는 신선함을 주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고백수업』 나만의 시편 만들기 |

저자 김준영 | 와웹퍼블



청년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바람을 일으킨 마커스의 설립자 김준영 대표는 노랫말 하나하나에 담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아픔, 좌절, 외로움 등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고, 그 시간들은 아름다운 노랫말로 고백되어 지금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청한다. 이 책은 ‘나의 고백’이라는 여백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여,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진심어린 고백들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오리지널 찬양을 들으며, 또한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자신의 고백을 글로, 그림으로, 그 밖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며, 그 고백들은 훗날 삶의 여정에서 주춧돌이 될 때 따뜻한 위로를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시 시대와 문화의 트렌드가 반영되었고, 가사가 성경적 내러티브 관점에서 실제 고백의 언어로 쓰인 가사라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사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 전 곡의 내러티브에서 주제를 찾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예상치 못한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개인의 고백적인 찬양 가사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개인 중심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사가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합니다만, 여전히 신학적 논란과 해석의 차이 면의 비판은 있습니다.

**신** 그래도 비판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김** 그럼요. 처음에는 반응을 안했었는데, 해석에 따라 생기는 오해의 부분도 제 책임이겠다 싶어 블로그 등에 가사에 대한 생각과 배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백수업』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쓴 가사에 대한 배경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목상 내용들을 담아 출간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은혜와 고백이 있어요. 이를 자신만의 고백들을 글과 다양한 모습으로 쓰도록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사진으로, 캘리그래피나 일러스트 등으로 하나님 앞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죠.

**신** 문화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문화 변혁에 대해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 이 사역이 과거 제가 문제의식을 갖았던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면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진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김준영 형제의 사역이 월드뷰 독자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